

동두천경찰서 신설예산 5억 반영

정성호 국회의원 행사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예결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정성호 의원은 10월11일 열린 2008년도 행사위 소관 예산심사에서 지역숙원사업인 ▶동두천경찰서 신설예산 5억 순증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인센티브 예산 150억 증액 ▶접경지역지원사업 103억 증액의 성과를 올렸다.

정 의원은 경찰청의 관서신설 예산안을 검토하며 "시 행정구의 인구증가로 인한 경찰서 분할 신설은 경찰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으나, 자치구이면서도 경찰서가 없는 전국 16개 시군의 지안독립성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동두천경찰서 신설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타당성이 인정되어 순증이 의결되었다.

또한 장흥면 삼상리 자연경로도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부처협의과정에서 인센티브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정 의원이 "대통령도 약속한 사업인 만큼 1년 뒤로 미루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15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

또한 양주, 동두천이 포함된 접경지역지원사업도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사업비가 당초목표액의 5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행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재촉하며, 삭감액의 절반인 103억원을 부활시켰다.

정 의원은 "기획예산처 실무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일일이 설득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 송의전 추계대제 제향

고려 태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비롯



개성왕씨중앙총친회는 10월13일, 연천군 아미리 소재 송의전에서 개성왕씨중앙총친회회원 16공신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대제를 개최했다.

개성왕씨중앙총친회는 10월13일, 연천군 아미리 소재 송의전에서 개성왕씨중앙총친회회원 16공신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대제를 개최했다.

이날 대제는 박광일 부군수가 초헌관을 맡아 제를 올렸으며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수조례, 망료례 등의 제례순서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송의전은 1397년 조선 태조6년에, 원래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암암사 자리에 고려태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건립한 것이 시초가 됐다.

사당 건립 이후 정종1년에는 왕명에 의해 고려 해종과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등 고려 8(여덟)왕의 위패를 봉안했으나 이후 1425년 세종7년에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등 4(네)왕만을 봉향하도록 했다.

문종1년에는 사당을 송의전이라 이름짓고 고려 4(네)왕과 더불어 복직경, 흥유, 신승경, 김부식, 정몽주 등 고려조의 충신 16명을 배향했다.

사적 제223호로 지정된 송의전은 조선시대에 총 5차례에 걸쳐 개수 와 증수를 반복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전소됐으며 이를 1972년, 사적으로 지정 다음 해 복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배전우들의 숭고한 精神 기려

육군 26사단 대구상이군경연합회 회원 초청

육군 26사단은 10월8일부터 1박2일간 대구상이군경연합회(회장 정성호) 회원 40여명을 부대로 초청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배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부대로부터 K-1전차와 장갑차, 구난전차, 교량전차(AVLB) 등 전투장비를 소개받았으며 첨단형 생활관과 사이버지식 정보방 등 현대화된 병영시설을 둘러보며 발전한 육군의 모습을 확인했다.

26사단이 창설할 무렵 복무한 김재영(78)회원은 "6·25당시 전차 한 대 없이 국가가 종전 등화의 위기에 처했는데 오늘 기계화 부대로 발전한 사단의 위용을 확인하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을 주관한 26사단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조국이 누

란의 위기에 처했을 당시 선배전우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댓가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선배전우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상이군경연합회는 후배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육군 26사단은 10월8일부터 1박2일간 대구상이군경연합회 회원 40여명을 부대로 초청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배전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최상식 전투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

양주·연천소방서 개청 내년 3월로 연기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지연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말까지 양주시, 연천군에 신설키로 했던 소방서를 내년 3월 완공될 전망이다.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 공사가 7월에야 시작될 양주와 연천소방서는 연내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골조공사를 겨울 전에 마무리하면 겨울에도 실내 마감공사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공사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3월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 양주시 백석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고가사다리차와 에어매트 등이 없어 7층에서 뛰어내린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자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소방서가 없는 양주·가평·연천 등 3곳에 286억여원을 들여 소방서 신설을 추진해 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민신·조극관·김문기 삼총단 추기 제향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삼충신 후손들 함께

동두천시 향토유적 제9호인 삼충단에서 10월10일 오전에 삼충단 추기 제향을 개최했다. 삼충단은 1453년(단종1)부터 1456년(세조2)까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항거하며 단종의 복위를 위해 君臣有義를 지켰던 충신으로 추앙 받고 있는 민신, 조극관, 김문기 삼충신의 호패비를 모신 곳이다.

기리는 제사의식으로 매년 음력 3월과 10월에 기일을 정해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제향을 지내고 있다. 이날 제향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삼충신의 후손들과 동두천상군관유도회원 50여명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삼충신의 넋과 충정의 뜻을 기리는 제를 올렸다.

삼충단 제향은 충신의 충절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1453년(단종1)부터 1456년(세조2)까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에 항거하며 단종의 복위를 위해 君臣有義를 지켰던 충신으로 추앙 받고 있는 민신, 조극관, 김문기 삼충신의 호패비를 모신 삼충단에서 추기 제향을 올리고 있다.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들자'

연천군축구협회장배 초·중·고 학생축구대회 실시

연천군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제1회 연천군축구협회장배 학생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스포츠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 행사는 연천군축구협회(회장 이원식) 주최로 10월17일 한탄강인조 잔디구장에서 연천관내 초·중·고 21개교 학생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학교 체육을 통해 배운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축구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원식 연천군축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생들이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규칙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익힘으로써 연천군 축구 발전과 학교 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경기에서는 전곡초등학교가 연천초등학교를 4대 1

로 이겨 우승을 차지하였고 중학교 경기에서는 청산중학교가 대광중학교를 2대 1로 이겼다. 고등부에서는 전곡고가 연천고를 3대1로 이겨 학교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다.

우승한 전곡초, 청산중, 전곡고 각 팀에게는 우승컵과 부상금으로 상금이 주어졌고 2위팀인 연천초, 대광중, 연천고등학교에도 상금과 준우승컵이 수여되

었다. 양기석 연천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축구는 개인의 능력 보다는 모든 선수가 서로 협력하는 팀워크가 많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팀이 하나가 되어 그동안 학교에서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고 이 넓은 운동장이 환호와 탄성으로 가득차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연천군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제1회 연천군축구협회장배 학생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스포츠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동두천소방서,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대상



동두천소방서는 10월10일 3층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양주교육청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동두천소방서(서장 홍진영)는 10월10일 3층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양주교육청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에 대비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화재시 대피요령, 소화기 및 소방시설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생활 수

의 응급처치교육 순으로 실시됐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가을철 및 동절기를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동두천소방서 예방과(☎ 031-862-2119)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웃과 함께 사랑나누기 국수바자회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 위해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윤교선)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성배)는 10월10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하기 위한 사랑나누기 국수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새마을지도자들과 보산동 통장협의회 및 각 유관단체의 후원으로 마련된 자리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중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녀회에서 국수, 떡, 순대, 과일, 고기 등 음식을 마련해 제공하여 따뜻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0월10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하기 위한 사랑나누기 국수바자회를 개최했다.

한 정감을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바자회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전자제품, 의류, 신발, 가방, 책 등의 물품을 보산동 각급 유

관단체 및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 버려지 장을 운영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함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007년 주민생활지원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산동 주민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가득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는 연초 "어려운

독거노인 간의 1인 1명 자매결연" 사업을 펼쳐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연말 어려운 이웃들

을 위해 쓰여 질 계획으로 참여자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결집 있는 바자회로 이끄는 데 앞장섰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호국정신 함양, 안보의식 계도

동두천시재향군인회 21C울곡포럼 창립식

동두천시 재향군인회(회장 한중갑)는 21C 동두천울곡포럼 창립식을 10월 18일 동두천웨딩코리야에서 개최했다. 21C 동두천울곡포럼은 한국사회에 대북 경제적 우위에 도취해 실마 속에 안보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함군은 남북체제 경쟁이 종식 될 때까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의식 계도와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안보복지대략 승춘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시 재향군인회(회장 한중갑)는 21C 동두천울곡포럼 창립식을 10월 18일 동두천웨딩코리야에서 개최했다.

포토뉴스



양주시 장애인 연합회장 이·취임식

양주시 장애인 연합회는 10월10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임흥빈 양주시장, 원대식 의회의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락 장애인연합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영훈 전임회장 공로패 수여 및 김진락 신임회장 임명장 수여와 장애인연합회장직 전달식이 있었다.



우이령 재개통 추진연합회 창립기념식

양주시는 10월10일 장흥면 문화센터에서 임흥빈 양주시장, 정성호국회의원, 원대식 시의장

음면동 우이령 재개통 추진위원회 위원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